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2호 【루계 제23379호】 주체100(2011)년 3월 3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총진격하자

2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계속 혁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여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뜻깊은 2월에 높이 세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각지 현지지도단위 경공업공장들에서 뜻깊은 2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계획수행기간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들의 현대화된 생산공정이 커다란 은을 내도록 원료자재보장대책을 잘 세우고 기술지도를 알심있게 하였다.

방직공업관리국아래 평양방직공장, 9월방직공장들에서 방적사, 일반천을 비롯한 지표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2월의 명절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이였다.

편직공업관리국아래 선교편직공장, 강계편직공장, 평양양말공장에서도 갖가지 내의류와 뜨개옷, 양말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편직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나가고있다.

보통강신발공장, 순천구두공장, 원산구두공장 등 신발공업관리국아래 현지지도단위들에서 신발의 질적구성을 개선하고 여러가지 구두, 신발생산을 늘여 월계획을 현물량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방직기계공업관리국아래 평양방직기계공장, 신의주방적기계공장들에서 방적기, 방적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였다.

잠업비단지도국아래 제사공장, 견직공장들에서 뜻깊은 2월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갔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함흥제사공장의 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계절적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도록 하였다. 박천견직공장, 녕변견직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갖가지 문양과 색갈의 비로도와 비단천, 데트론인견천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2월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곡산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 대동강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들에서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을 질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는 수도근로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법랑철기공장을 비롯한 일용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도 화장품과 일용필수품생산을 늘여 2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였다.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영예군인들은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현대화공사와 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에서 2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수력발전관리국의 일군들은 발전소들의 저수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전력생산에 리용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수풍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2월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그들은 발전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높은 수위, 높은 효률운전을 보장함으로써 전력생산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태천발전소, 장자강발전소, 위원발전소들에서도 2월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이곳 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기들의 정상적인 보수를 진행하는 속에서도 교대와 호기사이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높여 전력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생활대고조전투장들에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은 장진강발전소, 서두수발전소, 부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들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금속, 채취, 기계, 화학공업기지들의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보장하였다.

본사기자 리병춘

채취공업부문에서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광산,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1월에 이어 2월에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빛나게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국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월말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마그네사이트광석을 비롯한 전반적지표들의 생산량이 근 2배로 장성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총국아래 광산들에서는 굴진에 력량을 집중하고 광석을 다량채굴, 다량락광, 다량처리하면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금골광산, 검덕갱, 7.1갱, 남풍광산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2월계획을 앞당겨 끝낸 소대들이 많이 배출되였으며 련합기업소아래 9개 소대들에서 2월 중순에 1.4분기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룡양광산, 백바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1월에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린 기세를 늦추지 않고 드센 공격전을 벌려 2월에도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단천마그네샤공장과 성진내화물공장, 단천제련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면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표별로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단천광산기계공장, 단천시약공장에서도 설비마다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광산, 기업소들에 필요한 설비부속품과 시약을 제때에 보장해주었다.

흑색광업관리국아래 각지 광산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히 재령, 은률, 평산광산과 그밖의 단위들에서 뜻깊은 2월 광물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흑색광업관리국의 일군들은 금속공장들에 더 많은 철광석을 생산보장할 높은 목표밑에 재령, 은률광산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관리국적인 전투조직과 지휘에 따라 재령, 은률, 평산광산들에서 드세찬 생산돌격투쟁이 벌어졌다.

재령광산에서는 매장량이 풍부한 채광장들에 채굴설비들을 집중배치하고 겨울철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확대하였다. 광산당조직에서는 광부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였다. 이곳 광부들은 작업반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줄달음쳤다.

은률광산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채굴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넣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착정기들을 전망이 좋은 채광장들에 배치하고 공무기지를 강화하여 채광, 운광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였다. 이 과정에 많은 철광석이 생산되여 각지 금속공장들에 보내여졌다.

평산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도 1.4분기계획을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대고조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2월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본사기자 리철옥

대고조의 앞장에서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많은 강재를 생산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온 나라를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자

식수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궐기모임 진행,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나무심기에 참가

식수절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궐기모임들이 2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애국심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려나갈 결의를 담은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수절과 식수월간마다 전민이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열린 녀맹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로성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보통강구역 녀맹위원장 송양란, 평천구역 안산2동 초급녀맹위원장 신춘화, 모란봉구역 진흥동 녀맹원 신미화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식수절을 맞는 전체 녀맹원들은 우리 조국을 아름답게 전변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전망성있게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나무를 더 많이 심고 가꾸며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각급 녀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경쟁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녀맹원들이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에 애국의 열정을 바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지에서

만경대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 농근맹위원장 허덕복, 연탄군 송죽리 농장원 오명진, 녕변군 오봉리농근맹위원장 리영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살구꽃 만발한 농촌마을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모든 농촌살림집과 마을주변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애국의 열의를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으며 땔나무림을 조성하고 집뜨락, 마을주변에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근맹조직들이 동맹원들을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며 조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길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애국자로 준비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란봉에서

모란봉에서 진행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도시경영성 부상 박경봉, 평양시직맹위원장 리수진, 모란봉공원관리소 지배인 장원복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주체35(1946)년 3월 2일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산과 들을 아름답게 가꿀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산천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인민이 떨쳐나 나무심기를 활발히 벌려 온 나라를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직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조국애를 따라배우며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지대별, 필지별, 수종별나무심기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이 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직맹조직들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막이와 병해충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 동맹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통강혁명사적지에서

보통강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된 청소년학생들의 궐기모임에서는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초급청년동맹비서 김철진,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최광진, 평양전승중학교 학생 한모란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착공식에 참가하시여 친히 첫 삽을 뜨시면서 국토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소년학생들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가꾸며 거리와 마을, 일터와 학교를 훌륭히 꾸리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동맹일군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며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청년동맹조직들과 동맹원들이 조국산천을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모임들이 끝난 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함께 나무들을 심었다.

이날 철도성과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궐기모임을 가지고 나무심기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식수절을 맞으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나무들을 심었다.
—모란봉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청춘시절을 영웅적위훈으로!

◇ 오늘 《조선청년행진곡》은 선군청년전위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들은 조선청년 슬기론 인민의 아들딸
부강조국 건설하는 장엄한 새날의 투사다
일터에서 학원에서 우리의 젊은 힘 솟나니
발걸음도 우렁차게 김장군 두리에 뭉치자
…

선군청년총동원대회와 더불어 온 나라에 울려퍼지는 《조선청년행진곡》, 이것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일심단결의 행진곡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진군가이다. 이 노래를 부르며 노도쳐 전진하는 청년전위들의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 청년들은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의 주인공이며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춘을 빛나게 살자!〉, 이것이 청년들이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며 인생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가 있은 이후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의 기본재산은 금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젊은 세대들이며 인재들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청년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중시하는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억세게 자라났다. 사나운 파도와 용감히 싸우며 조국의 대지를 넓힌 영웅들도 우리 청년들이고 최첨단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는 기수도 우리의 미더운 청년과학자들이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청년들이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나아갈 때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선군시대 청년들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는 길이 있다.

◇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답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청년전위답게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피끓는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선군청년총동원대회에서는 이 땅에 사는 청년이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맡은 초소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전방으로, 리수복영웅이 열어제낀 전승의 돌격로로 여기고 오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지금이야말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해 청춘의 힘과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어야 할 때이다. 모든 청년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전의 총폭탄용사,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돌격대, 최첨단돌파전의 제1번수가 되여야 한다. 《조선청년행진곡》이 영웅적위훈의 청춘송가로 온 나라에 힘있게 울려퍼질 때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려질것이다. 우리 당이 열어준 승리의 길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

건설장비 및 기공구전시회와 륜전기재출동식 진행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시공 및 건재생산단위들의 건설장비 및 기공구전시회와 륜전기재출동식이 통이 크게 진행되였다.

수도건설총국과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맡은 모든 시공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와 출동식에는 살림집건설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능률적이며 쓸모있는 건설장비 및 기공구들과 새로 정비된 륜전기재들이 나와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대의 자력갱생선구자가 되자면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제힘으로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수도건설총국아래 여러 단위들이 면밀한 준비밑에 참가한 건설장비 및 기공구전시회와 륜전기재총점검이 실속있게 진행되였다.

혁명사적지건설관리국과 평양시건재관리국, 평천부재공장과 대동강골재사업소를 비롯한 총국아래 여러 단위들에서 내놓은 새로운 건설장비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공구와 부속품들은 750여종에 달하였다. 총국아래 칠골건설기동려단과 갈림길건설기동려단, 대동강건재기동려단과 송신건설기동려단을 비롯한 여러 수송단위들과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는 자동차기중기와 화물자동차들을 모두 새 차처럼 정비하고 크랑크축과 축전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내놓아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편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성, 중앙기관돌격대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기공구전시회와 륜전기재출동식을 통하여 맡은 공사에서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해나갈 자기들의 혁명적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평양시인민위원회건설사단과 석탄공업성건설련대, 인민봉사총국건설려단 2대대와 체신성건설려단, 륙해운성건설련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새로운 건설공법을 적용하는데 효과있게 쓰일 가치있는 기공구들을 내놓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와 김두경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자동차운전사들을 비롯한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많은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자동차정비를 잘하고 쓸모있는 건설기공구를 자체로 만들어 내놓았다.

총점검에 참가한 수도건설총국아래 여러 단위의 륜전기재들은 그날로 수도의 중요건설장들에 골재를 비롯한 많은 물동을 실어날랐다.

본사기자 지원철

장 군 님 과 C N C (1)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가운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경제의 CNC화를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신 불멸의 력사를 담은 도서가 나왔다.
본사편집국은 오늘호부터 도서 《장군님과 CNC》를 련재하여 내보낸다.

송 미 란

마 우 스 를 쥐 신 모 습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집무에 열중하실 때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사무실에서처럼 콤퓨터화면에 비쳐지고있었다.

언제인가 희천청년전기련합기업소 전자도서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방안의 온도를 가늠해보시면서 새벽까지 콤퓨터를 하느라면 등이 시릴 때가 있는데 온도를 더 높여주어야 한다고 다정히 깨우쳐주시였다.

보통스럽게 하신 말씀이였다.

하지만 그 다정한 말씀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심장을 울려주고있다.

불철주야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혁명시간은 삼라만상이 다 잠든 깊은 밤에도 콤퓨터앞에서 그렇게 소리없이 흘러가고있었던것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사회주의조선에 최첨단돌파전의 시대를 불러내신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력사는 그렇듯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시간들의 련속이였던것이다.

가볍게 마우스를 다루시는 그이의 모습은 과학의 미지세계를 파헤쳐나가는 프로그람수를 련상케 한다.

그분의 건반밑에 흘러가는 프로그람은 물론 단순한것일수 없다. 자그마한 건반과 함께 어떤 정치프로그람이 입력되는가 하는것은 누구도 상상할수 없을것이다.

참으로 감격적인 력사의 행운이다.

대국의 정치가들이 머리숙이고 적수들까지 무릎꿇고 찾아오게 만드시는 필승의 강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CNC라는 말에 담게 된것은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지금까지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총대정치, 음악정치에도 담아보고 혼연일체와 동지애의 력사에도 담아보았으며 선군정치의 성스러운 화폭에도 담아보았다.

만민을 매혹시키는 그이의 정치는 CNC라는 새로운 시대어와 함께 인류정치사에 있어본적 없는 놀랍고도 비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있다.

CNC는 이미 우리 장군님의 강력한 정치수단으로 되였다. 세계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CNC를 알고 그것을 정치와 결합시켜본 정치가는 없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우리 장군님의 특유한 정치매력이 CNC로 더욱 부각되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CNC화를 통하여 이룩하신 새로운 승리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CNC라는 말이 단순한 기계기술의 범주로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의 돌파전을 추동하는 혁명의 언어로 전환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구상하신 온 나라의 CNC화는 우리 조선에 지식경제시대를 불러오는 귀중한 불씨로 되였으며 경제강국건설의 든든한 기초로, 조국번영의 무한한 원천으로 되였다.

이러한 격동적인 사실이 문필가들에게 주는 충격은 보다 크다.

누구나 CNC노래를 흥겹게 부르고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CNC에 대한 사랑이 실지로 얼마나 뿌리깊고 폭넓은 세계를 안고있는가 하는것을 다는 알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적느낌은 최첨단돌파의 초행길을 개척해나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력사의 한 갈피라도 직접 써서 후손만대에 전하고싶은 소망을 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CNC기술을 개척해나가신 불멸의 령도를 자료적으로 보여주는 책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도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나라의 CNC화를 구상하시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최첨단돌파전에로 이끌어오신 령도과정을 일화형식으로 전개하였다.

취재과정에 수집한 자료들에 기초하면서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력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해온 련하기계관리국 일군들과 해당 부문 일군들의 방조속에 책을 완성하였다.

불과 한두해사이에 수집한 부족되는 자료들이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세계와 위인적풍모를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싶은 심정에서 도서 《장군님과 CNC》를 내놓는다.

제 1 편

비 범 한 결 심

나는 지금도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강도를 찾아가던 때의 일이 눈에 선합니다. …

김 정 일

대국상의 파도가 사품치던 1994년이 저물어갔다.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갑시다.

1995. 1. 1

김 정 일》

피눈물을 삼키시며 한자한자 쓰신 이 친필서한을 새해를 맞이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박솔초소에 이어 나라의 국력을 다지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해야 할 공장들을 찾으시였다.

눈물의 동음을 안고 서있는 기계들과 말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현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우셨다.

피눈물의 맹세를 다지며 일어난 인민이였지만 그 인민이 가야 할 앞길에는 너무도 큰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져내리는 것과 민족의 대국상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은 극도에 달하였고 자연재해까지 겹치여 기계동음마저 멎을 형편이였다. 하지만 로동자들은 그 기대들을 떠나지 않고있었다. 굶어쓰러질지언정 기대만은 못 버리겠다는 로동계급의 신념의 목소리가 가는 곳마다에서 울려나오고있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신 경애하는 그이께는 당장 풀어야 할 력사의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무엇부터 어떻게?

이 력사의 물음앞에 서신 경애하는 그이의 마음속에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리였다.

한없이 친근한 목소리였다.

전후 가장 어려운 때에 울려나온 어버이수령님의 목소리였다.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줴치는 종파분자들에게 기계에서는 밥도 나오고 천도 나오고 별의별것이 다 나온다고 선언하시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던 수령님의 음성이 가야 할 선군의 길에 희망의 종소리마냥 장엄하게 울려오고있었던것이다.

기계로부터!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련속에서 강성대국의 목표를 내세우신 우리 장군님의 최상의 선택이였다. 이 비범하고도 운명적인 선택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운명발전에서는 누구도 감히 예측할수 없었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던것이다.

CNC,

참으로 그것은 피눈물의 바다에서 조국을 일떠세우신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결심, 위대한 선택의 고귀한 산아였다.

처음으로 불러주신 CNC

주체84(1995)년 4월 29일이였다.

수도의 교외를 따라 한대의 승용차가 질주해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야전차였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살구꽃풍경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시는듯 그이께서는 조용히 사색중에 계시였다.

승용차는 어느덧 진달래꽃, 매화꽃, 철쭉꽃 등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고 록음이 우거진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어느 한 공장의 구내에 들어섰다.

여러가지 제품들이 전시되여있는 홀에 들어서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보통사람의 눈으로는 무슨 기계인지 알수 없는 두대의 기계설비가 그이앞에 나란히 서있었던것이다.

《이것이 CNC가 아닌가?》

기쁨과 놀라움이 한데 섞인 물음이였다.

CNC?

동행한 일군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여 서로 마주보면서 눈을 슴벅거리였다.

사실 그 시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대한 결론들을 주셔야 할 귀중한 시간이였다. 때문에 수행한 일군들은 그이께서 낯선 기계앞에서 시간을 지체하시는것만 같아 초조감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촉박한 시간에 대한 감각을 다 잊으신듯 새 기계에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물으시였다.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들이요?》

《련하기계》개발집단에서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렇소?》하시며 대번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이께서 첫눈에 알아보신 두대의 기계, 그것은 《련하기계》개발자들이 자체로 설계제작한 CNC줄방전가공반(4축)이였다.

참으로 기다리시던 일이였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의 수자조종공작기계개발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들이신 품이 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기계공장들에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려주시고 그 완성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오시였다.

극소형콤퓨터의 출현과 함께 CNC공작기계시대가 펼쳐진 1980년대의 세계흐름과 동시에 우리 나라 공작기계공업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해오신 절세의 위인들께서 오늘의 이 성공을 얼마나 기다려오셨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련하기계》개발집단을 꾸려주신것은 1992년이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과 공장의 기술자들로 개발력량을 무어주시고 그들이 개발해낼 CNC기계에 《련하기계》라는 자호를 새기도록 력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날은 1992년 7월 15일이였다.

그때부터 《련하기계》개발집단은 어서빨리 새 기계를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일념으로 CNC공작기계개발에 모든 열정과 지혜를 바쳐온것이였다.

CNC공작기계의 탄생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념원이였고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였다.

개발자들은 몇년간의 간고한 투쟁을 벌려 끝내 만들어낸 새 기계를 어서빨리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었지만 첨단기계라는 말을 외우기에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피눈물의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의 념원을 실현한 첨단기계를 만들어낸 크나큰 경사를 소리쳐 자랑하고싶었지만 오늘일가, 래일일가 장군님 오실 날만 손꼽아기다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기계를 소리없이 세워두었던 개발자들이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관홀에 세워둔 그 기계를 첫눈에 알아보신것이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

개발자들의 가슴속에서 오열이 터져나왔다.

경애하는 그이와 새 기계개발자들사이에만 통할수 있는 크나큰 희열의 감정, 성공의 감정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난 뒤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천만금의 재부인들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랴.

그이께서는 조선사람들의 머리로 만들어낸 CNC기계가 너무도 귀중하여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면서 시종 미소를 거두지 못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사람들은 CNC라는 말을 잘 알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2년에 CNC기계의 가장 초보적인 조건을 갖춘 수자식공작기계가 나왔다. 그 이름을 처음에는 콤퓨터수자조종공작기계라고 불렀다. 따라서 CNC라는 말은 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련하기계》개발자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극히 제한된 전문가들속에서만 통용되고있는 CNC라는 말을 그이께서는 이미 스스럼없이 부르고계신것이다.

세 번 의 박 수

프로그람을 입력시킨대로 CNC기계가 동작하기 시작하였다.

뽀얀 물보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정밀하게 부속을 깎아나가는 신비로운 기계였다.

설비의 외형과 조작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들이 이 설비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사온것으로 알지 우리 나라에서 만든것이라고는 믿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 희한한 CNC공작기계가 태여났다고, 우리의 새 기계에 축하를 보내자고 하시며 박수를 쳐주시였다.

아직 CNC기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이께서 너무 기뻐하시니 일군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꿈과 같은 영광속에서 자랑날개를 한껏 펼친 공장지배인의 목소리는 희열에 넘쳐있었다.

《장군님, 이 줄방전가공반으로는 3차원곡면, 타빈날개, 각종 형타 등 구조가 복잡한 제품들을 다 가공할수 있습니다.》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손수 방금 가공된 흑연제품형타를 드시고 가공면을 살펴보시였다.

《이 제품은 일반공작기계로는 가공할 엄두도 내지 못할것입니다. 이 동무들이 마음먹고 달라붙으니 첨단급의 CNC설비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일군들을 둘러보시였다.

그 시각 장군님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리상의 파도가 굽이치고있었다.

기술발전의 력사는 인간의 위대함을 증시해준다.

CNC라는 말이 세상에 나온것은 1970년대 후반기이다. 수공업적으로 제품을 깎아내는 기계로부터 반도체소자에 의한 조종장치로 구성된 NC기계, 그것이 다시 콤퓨터프로그람에 따라 조종되는 CNC기계에로…

가로, 세로, 수직방향의 보내기축마다 이동거리와 속도를 엄밀한 수값으로 지정해주는것으로부터 CNC공작기계의 동작이 시작된다.

기계가 움직인 량을 수값으로 받아들여가지고는 처음의 지령과 비교하여 자체로 수정하면서 부분품을 가공하는것이 CNC의 원리이다.

바로 이 첨단기계의 출현으로 하여 1㎛이하의 초정밀도가공이 실현되였다. 그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현실이였다.

가공부분품의 형태도 원형이나 구형은 물론 임의의 복잡한 형태의 자유곡면도 마음대로 깎을수 있게 되였으며 결과 기계제작공업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CNC기술을 도입하기 전에는 실현하지 못하였던 6축, 7축까지 동시조종할수 있는 공작기계가 나왔다.

소재를 한번 설치하고 5개 면을 다 가공할수 있는 수직가공중심반도 나왔다. 선삭가공중심반을 비롯한 CNC전문기대들도 나오게 되였다. CNC의 출현으로 생산능률은 수십배로 높아졌다. 그 어떤 복잡한 형태의 부분품도 고급기능공이 아닌 보통기대공이 가공할수 있게 되였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된 몇개 나라들에서만 만들어내고있는 첨단수준의 기계설비를 자기 힘으로 끝내 만들어내는데 성공한것이다.

자기 수령의 구상이라면 하늘도 이길수 있는 훌륭한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슴속에 물밀어왔다.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수자조종선반을 생산하고 그보다 발전된 수자조종줄방전가공반도 만들고있습니다.

수자조종줄방전가공반을 자체로 설계하여 만들고있는 기술자, 로동자들이 정말 재간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CNC기계의 탄생을 위하여 바쳐오신 온갖 로고에 대하여서는 소리없이 묻어두시고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에게 모든 공로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에서 수자조종줄방전가공반을 만드는데 기여한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수자조종줄방전가공반을 만드는데 기여한 전체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특별감사를 보냅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자리에서 공장의 당비서가 지배인을 가리키며 말씀올리였다.

《장군님, 우리 지배인동무도 CNC줄방전가공반제작에 참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배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박수를 보내시였다. 장군님께서 뜨겁게 보내주시는 박수를 따라 수행일군들모두가 박수를 쳤다.

지배인은 너무도 황송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장군님, 우리를 어째보려는 미국놈들을 기술로써 제압하겠습니다!》

공장지배인의 목소리였다.

《좋소. 우리 개발자들의 훌륭한 결의에 축하를 보냅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박수를 보내시였다.

새 기계가 나온것을 축하하여 박수를 보내시고 새 기계를 만들어낸 개발자들을 축하하여 두번째로 박수를 보내시였으며 그들의 결의를 축하하여 세번째로 보내주시는 박수였다. 잊을수 없는 세번의 박수였다.

아직은 누구도 몰랐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피눈물의 언덕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가 싹트고있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간 뒤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번의 박수를 보내주시던 잊을수 없는 그날에 대하여 이렇게 자주 추억하시였다.

《…그때 현관홀에 서있던 두대의 기계를 잊을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처음으로 본 〈련하기계〉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벌가리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쏘피아

벌가리아공화국 대통령

게오르기 빠르바노브각하

나는 벌가리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0(2011)년 2월 25일　　평 양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혜산의학전문학교에서―　리진명 찍음

‖혁 명 일 화‖

진 달 래

아직은 산과 들에 꽃이 피지 않는 계절이다.

하지만 찬바람이 가셔지지 않은 이 땅에는 계절을 당기며 마음의 《진달래》가 활짝 피여나 짙은 향기를 풍기고있다.

여기에 우리 인민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진달래가 목메여 전하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다.

지난 2월 27일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회의실에 전시된 희귀한 꽃을 보시였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서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여난 화분으로 시선을 주시였다.

물기를 머금은 만발한 꽃잎이며 보는 사람의 가슴을 정결하게 해주는 청초한 잎새들.

먼길의 피로가 순간에 풀리시는듯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화분앞으로 다가서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한 일군이 꽃에 깃든 사연을 아뢰이였다.

여러해동안 고심참담한 노력끝에 아름답고 황홀한 이 꽃을 재배하는데 성공한 어느 한 나라의 화초가들은 한생의 열정이 다 담겨진 진귀한 꽃을 우리 나라에 보내면서 이 꽃의 이름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불러주었으면 하는 자기들의 절절한 소망을 표시하였다.

류달리 아름답고 오래 피는것이 이 꽃의 특성이라는 해설을 들으시며 그윽한 시선으로 꽃잎이며 잎사귀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좋은 꽃을 육종했다고 화초가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 사랑하신 꽃은 진달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어머님을 그려볼 때면 진달래를 먼저 생각하군 합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어머님의 모습으로 새겨진 진달래가 피여있습니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은 불시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진달래!

항일의 그날 삼지연못가에서 어버이수령님께 꺾어드리면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충효의 마음 담으신 조선의 봄향기꽃, 조국진군의 길을 제일먼저 맞아준 꽃이라고 그리도 사랑하시며 녀투사들의 손수건에 곱게 수놓아주시던 조국의 진달래…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그 꽃들중에서도 찬서리를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남먼저 맞이하는 진달래를 우리 인민은 억세인 기상과 아름다운 마음을 상징하는 꽃으로 특별히 사랑한다.

바로 그 꽃처럼 억세게, 그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시고 이 땅의 모든것을 사랑하시고 소중해하시였으며 그것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이시여서 진달래를 그리도 사랑하신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못 잊을 어머님의 영상을 진달래꽃속에서 웃고 계시는 모습으로 기억하고있는것이였다.

하기에 세상에 새로 태여난 한떨기의 화초를 보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인민들의 소중한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보시였으리라.

아름답고 진귀한 꽃에 김정숙어머님의 존함을 모시는것은 천만군민의 절절한 소망이건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가슴에 어머님의 모습으로 새겨져있는 진달래를 영원히 꽃피워주고싶으셨으리라.

위대한 장군님의 심정에 고패치는 고결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눈시울을 적시며 가슴후덥게 받아안는 일군들은 꽃 하나를 보시고도 인민들부터 생각하시는 장군님의 뜨거운 마음에 머리가 숙여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봄이면 이 땅의 산과 들 어디에나 피여나는 진달래이건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리도 애틋함과 사무치는 정서를 느끼시는것은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어머님의 고결한 애국의 넋과 숭고한 념원이 꽃송이마다에 잎사귀마다에 소중히 어려있기때문이였다.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언제인가 진달래가 만발한 령마루에 오르시여 조국땅의 드넓은 대지를 굽어보시며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나라는 어디 가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 우리 인민이 번영하고 통일된 조국땅에서 행복하게 살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통일된 삼천리강산에 만발한 아름다운 조국의 진달래가 펼쳐지였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눈서리와 찬바람을 이겨내고 새봄을 먼저 알리는 진달래처럼 위대한 어머님의 한생의 념원을 충직하게 받들어 경애하는 장군님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승리의 그날을 기어이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국의 진달래는 이 강산을 붉게 물들이며 인민들의 마음속에 먼저 피여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으로

황주군 장천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우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전설적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대중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특히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김정숙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새 조국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신 투쟁자료를 깊이 연구학습한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독보와 해설담화 등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농장의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작업의 휴식참을 리용하여 농장원들에게 김정숙동지께서 대사하치기, 홍기하 등 항일의 격전장들마다에서 사령부의 안전을 결사수호하신데 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장원들은 김정숙동지께서 발휘하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선군시대의 애국농민이 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홍 철 남

체신의 최첨단돌파전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우리 나라에서 세계선진수준의 정보고속도로와 3세대이동통신망, 위성통신체계 확립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열풍속에서 우리의 체신이 일대 변혁을 이룩하고있다.

당의 주체적인 체신건설사상과 정책을 받들고 체신부문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에 의한 통신망의 빛섬유케블화를 완성하고 이에 토대하여 세계선진수준의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였으며 전국적인 3세대이동통신망을 형성하였다.

최신기술에 기초한 위성통신능력의 급속한 장성으로 우리 식의 위성통신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였다.

체신의 현대화에서 이룩된 이 혁신적성과는 사회주의체신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에 맞게 최첨단체신건설의 자랑찬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문명강국에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눈부신 발전면모의 과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나라의 체신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의 체신혁명방침의 요구에 맞게 체신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25년전인 주체75(1986)년 3월 4일에 진행하신 국제위성통신국에 대한 현지지도는 나라의 체신발전에서 일대 혁명을 안아온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성통신발전의 웅대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나라의 통신망을 빛섬유케블로 전환할데 대하여 발기하신것을 비롯하여 체신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빛섬유통신의 새시대가 열려졌으며 체신발전에서 획기적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세계를 향한 우리 체신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2(1993)년 8월 사회주의체신건설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된 불후의 고전적로작 **《체신의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를 발표하시고 체신사업에서 일대 변혁과 전진이 이룩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체신을 하루빨리 최첨단수준에 올려세우시기 위해 세계적발전방향과 그에 따르는 우리 체신현대화의 종자와 과업,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혁명적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 못하는 통이 큰 목표들을 끊임없이 제시하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는 우리의 체신이 현대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고 비상한 속도로 발전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체신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나라의 신경인 체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눈부신 전진을 이룩하였다.

통신망의 빛섬유케블화, 수자화, 자동화가 빛나게 실현되여 나라의 통신구조가 근본적으로 갱신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평양빛섬유통신케블공장이 나라의 빛섬유케블화를 든든히 뒤받침해주었다.

공장에서는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생산공정을 최신식으로 개건하고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늘어나는 빛섬유케블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 위력한 생산기지에 토대하여 평양—함흥사이의 첫 빛섬유케블공사가 시작되였다. 련이어 중앙과 각 도사이에 그리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속에서도 전국의 시, 군들에까지 불과 몇년사이에 빛섬유케블이 건설되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통신하부구조가 완비되는 속에 전국적인 빛섬유케블화가 완성되였다.

체신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빛섬유케블건설과 함께 수자식중첩기에 의한 통신회선의 다중화와 전화의 자동화를 전국적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빛섬유통신망이 수자식기술로 갱신되였다. 수자식기술이 점차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면서 동기수자식중첩기에 의한 빛섬유통신망의 고속화, 대용량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종래의 전화교환방식이 수자식교환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전화의 자동교환능력이 종전에 비해 근 20배로 확장되였다.

도시를 위주로 하여 전화가 자동화된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각지 농촌리들에까지 자동전화가 들어간것은 가장 인민적인 우리 식 사회주의체신의 면모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통신기계공장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고 수자식자동교환기, 자동전화기, 분선반 등 정교하고 성능높은 체신설비와 자재들이 대량생산되여 빛섬유통신의 현대화를 적극 추동하였다.

첨단기술에 의한 전국적인 빛섬유케블화가 실현됨으로써 나라의 정보통신을 최단기간내에 마음먹은대로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졌다.

빛섬유케블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세계선진수준의 고속자료통신망이 구축되였다.

언제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새 세기 우리의 체신은 남들이 걸어온 현대화의 수십년을 몇년으로 주름잡는 대비약을 일으켰다.

일명 정보고속도로라고 하는 고속자료통신망의 건설은 최첨단에로 나아가는 우리 체신의 획기적인 기술적진보로 되였다.

정보통신연구소, 중앙빛섬유통신관리소 그리고 중앙과 각 도정보통신국을 비롯한 체신부문 단위들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중앙정보통신망의 전송능력을 부단히 높여 불과 반년사이에 중앙과 도사이의 정보전송망 대역을 수백배로 확장하였다.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여넘을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긴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최첨단기술인 파장분할중첩기술을 정보전송망에 도입하였다. 결과 세계적으로 높은 급의 대용량정보고속도로가 단 1년동안에 확립되여 전송능력이 수천배로 확대되는 놀라운 혁신이 창조되였다.

고속자료통신망이 구축됨으로써 전화통신, 자료통신, 이동통신 특히 과학기술보급과 원격교육, 먼거리의료봉사, 화상회의 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을 통한 전문적인 원격교육체계와 함께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자랑높은 인민대학습당에서 전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격강의를 할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교육체계가 확립되였다. 또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가 실현되여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체신현대화구상에 따라 전국적인 3세대이동통신망이 형성되였다.

3세대이동통신은 전화통화와 우편발송뿐아니라 영상과 다매체전송 등 다양한 편의봉사로 하여 첨단정보통신으로 되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새로운 이동통신망이 평양시에 건설된데 이어 불과 2년사이에 이동통신기지국이 각지에 일떠섰다.

3세대이동통신망이 도, 시, 군소재지들을 비롯한 전국각지를 포괄하는 통신망으로 최단기간내에 건설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의 위성통신체계가 첨단수준에 확고히 올라섰다.

국제위성통신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새로운 선진적인 통신방식을 받아들여 위성통신설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 과정에 극소형위성통신망이 구축되여 어떤 조건에서도 국가경제관리를 위한 지휘통신운영이 믿음직하게 보장될수 있게 되였다.

모든 위성통신설비들과 TV중계설비들이 짧은 기간에 수자식통신방식으로 전환되여 국제TV위성중계의 수자화가 실현되였다.

위성통신체계가 첨단설비와 기술로 장비되여 그 능력이 비할바없이 장성하였다.

세계적추세인 고품질TV전송설비가 훌륭히 갖추어져 위성을 통한 국제통신 및 국제TV중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적인 위성통신체계가 튼튼히 확립됨으로써 그 어떤 규모의 국제적인 회의나 행사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통신능력이 갖추어졌다.

체신의 현대화에서 일어난 세기적변혁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과학기술경쟁에서 남들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으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하게 벌려 이룩한 자력갱생의 고귀한 산물이며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든든한 밑천이다.

지금 체신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방송수단의 현대화와 방송의 다양화실현을 비롯하여 우리의 체신을 세계의 앞선 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최첨단을 돌파하고있는 우리의 체신은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이다.

국 제 위 성 통 신 국

사회주의경쟁순회우승기 여러 농장들에 수여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천군 은흥협동농장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고산과수농장,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표창장과 주체99(2010)년 사회주의경쟁순회우승기가 수여되였다.

이 단위들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해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농업생산을 늘이고 마을들을 선군시대의 무릉도원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왔다.

수여식이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리경식 농업상, 관계부문 일군들, 경쟁단위와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서 모범적인 단위의 농업근로자들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경쟁총화보고를 하였으며 은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허정옥, 고산과수농장 지배인 최종수, 칠골남새전문농장 초급농근맹위원장 김성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해 농업부문을 비롯하여 온 나라 대고조격전장들에로 애국헌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강성대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들은 사회주의경쟁이야말로 농업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전변을 안아올수 있게 하는 위력한 대중운동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어 주체100(2011)년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수여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강동군출판물보급소에서

강동군출판물보급소 일군들과 보급원들은 비상한 정신력을 가지고 올해의 총공격전을 힘차게 다그쳐가고있다.

소장 리춘옥, 당세포비서 배영희동무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올해의 전투목표를 높이 세웠다.

그들은 올해에 출판물보급사업을 기동적으로 하면서도 대고조격전장들에 들어가 도서선전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잘 세웠다.

도서선전에서 최대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진행한 이곳 일군들과 보급원들은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도서선전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리순실, 윤명심, 박순희동무를 비롯한 보급원들은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전투로 들끓는 협동벌들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일손을 같이하면서 쉴참을 리용하여 도서선전을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각 작업반들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도서선전은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그들을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한편 지난 1월 강동탄광에 나간 로옥화, 김영국동무들을 비롯한 보급원들은 갱들을 순회하면서 도서선전을 본때있게 벌리였다.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간 지원물자들도 탄부들에게 안겨주면서 그들을 혁신과 위훈에로 적극 추동하였다.

다른 탄광들에 나간 보급원들도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라는 자각을 안고 대중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도서선전을 실효성있게 벌리였다.

보급원들은 또한 군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도 도서선전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생산적열의를 부쩍 높여주었다.

대고조격전장들에 들어가 활발히 진행하는 이곳 출판물보급소일군들과 보급원들의 도서선전은 군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혁신의 불길이 날로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박 준 성

인민들에게 맛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창성식료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순천화력발전소에서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여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의 과학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생산장성의 가장 큰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지난 기간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 과정에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과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얼마전에도 발전소에서는 같은 생산조건에서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종전보다 2% 더 높이였다.

발전설비 한대당 효률을 1%만 높여도 많은 전력이 증산된다고 볼 때 여러대의 발전설비들을 개조하여 나오게 되는 전력은 순시로 근 1만kW에 달한다.

이것은 기술을 혁신하여 어지간히 큰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하는것과 맞먹는 전력을 거저나 다름없이 얻어낸것으로 된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지난해부터 어느 한 과학연구기관에서 이룩한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그에 따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연소효률을 높일수 있게 보이라를 개조하고 기발한 착상으로 공기예열장치를 새것이나 다름없이 보수정비하였다.

이어 진행된 시험생산결과는 아주 좋았다.

앞선 과학연구성과가 도입된 발전설비에서 같은 량의 석탄으로 많은 전력이 더 생산되였던것이다. 발전설비운영도 순조롭게 잘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모든 발전설비들에 이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1월 중순경 기술개조가 끝난 마지막발전설비가 또다시 생산에 들어갔다.

결과 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은 현저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같은 량의 석탄으로 전력을 증산하여 1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뜻깊은 2월에 더 큰 성과를 안아오게 되였다.

올해공동사설과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에 호응하여 떨쳐나선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지금 당의 과학중시로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는데 달라붙었다.

본사기자 전 성 삼

전투장을 진감하는 대고조의 북소리

주요탄광, 발전소들에서 집중경제선동 진행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집중경제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순천, 덕천, 강동, 개천, 북창, 온성, 함남지구의 탄광들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발전소들에서 중앙예술단체, 도예술선전대들과 시, 군(구역) 기동예술선동대들의 집중경제선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경제건설의 중요전투장들에서 선전선동공세를 집중적으로 들이대며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야 합니다.》

탄광과 발전소들에 달려나간 중앙예술단체, 도예술선전대들과 시, 군(구역)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노래 《승리의 길》, 《래일을 믿으라》를 비롯한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하고 혁명적락관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주제로 집중경제선동을 패기있게 벌림으로써 탄부들과 전력생산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천성청년탄광에 달려나간 중앙예술경제선전대원들은 도착한 첫날부터 갱막장에 들어가 화선식집중경제선동을 맹렬하게 벌려나가는것과 함께 동발도 나르고 탄차도 밀면서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과 혁신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또한 이들은 정황과 계기에 맞게 구두선동, 정황선동도 참신하게 진행하는 한편 작업의 쉴참에는 탄부들과 손을 맞잡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들의 전투적사기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남덕, 인포탄광에 내려간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원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갱막장에 들어가 전투장을 들었다놓는 드세찬 집중경제선동의 포성으로 석탄증산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생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서창청년탄광, 덕천탄광의 탄부들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을 찾아간 녀맹중앙예술선전대원들은 노래 《장군님 지켜가리》, 《장군님식솔》, 《돌파하라 최첨단을》 등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노래들을 부르면서 화선식집중경제선동을 패기있게 벌려나갔다. 또한 이들은 하루에도 여러차례의 혁신자축하공연, 현장오락회도 기동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탄부들의 일손도 도와주고 지원물자도 안겨주어 일터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였다. 특히 이들이 준비한 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는 사상예술성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생산자대중의 가슴마다에 선군시대의 로동계급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당이 맡겨준 혁명의 초소를 변함없이 지켜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게 하였다.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국립연극단, 평양교예단의 예술인들도 소편대를 뭇고 령대탄광, 신창청년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들에 달려가 웃음과 랑만을 안겨주는 예술작품들로 집중경제선동을 줄기차게 내밀었다.

이밖에도 평양시와 철도성, 평안북도예술선전대들과 회령시, 만경대구역, 온성군기동예술선동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예술선전대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봉천, 조양, 운곡, 궁심, 주원탄광들과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등 많은 탄광들과 발전소들에서 집중경제선동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였다.

본사기자 황 철 웅

농업생산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 활발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광범한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년초에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올해 부문별사회주의경쟁요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도, 시, 군농근맹조직들에 내려보내였다. 이와 함께 농근맹초급위원회들에서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회주의경쟁에 대한 지도를 옳바로 하게 하여 그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고있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의 농근맹초급조직들에 경쟁의 불을 걸어 이 단위들이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을 령도업적단위 농장들에 내려보내여 모든 농근맹초급조직들에서 경쟁단위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추적전을 벌리도록 정치사업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게 하였다.

지난 1월말,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의 작업반을 맡고 내려간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농근맹원들속에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는 목적과 의의를 인식시켜 그들이 경쟁마당에 적극 뛰여들게 하였다.

농근맹초급단체들사이에 치렬하게 벌어진 사회주의경쟁을 통하여 리농근맹초급위원회는 농사차비에서 도적으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황해남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난 1월말 도부림소관리공열성자회의를 소집하였다.

부림소에 대한 영양관리를 짜고들어 축력에 의한 농산작업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갈 목적밑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시, 군농근맹위원회들에서도 부림소의 영양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경쟁조직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신천군농근맹위원회에서는 도부림소관리공열성자회의가 있은 후 부림소관리와 관련한 단기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군안의 농근맹초급단체들에서 수천마리의 부림소를 맡아 관리하여 살찌우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올해 군에서는 부림소를 리용하여 많은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15개 시, 군의 2 000여명의 농근맹초급일군들이 수천마리의 부림소를, 2 600여개의 농근맹초급단체들에서 2 900여마리의 부림소를 맡아 영양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농산작업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연안군농근맹위원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가마니생산을 위한 농근맹초급조직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그 운영을 실정에 맞게 짜고들었다. 하여 올해 가마니생산계획수행에서 앞장서게 되였다.

평양시농근맹위원회 일군들은 농근맹초급조직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농근맹원들의 정신력이 농사준비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의 농업근로자들속에 내려간 시농근맹일군들은 그들과 어울려 일하면서 모두가 사회주의경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는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였다.

이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안북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시, 군농근맹조직들이 농사차비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데 모를 박고 사회주의경쟁을 치밀하게 조직하게 하고있다.

정주시 침향협동농장의 농근맹초급위원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흙보산비료원천확보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짧은 기간에 높은 실적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적으로 170여개의 농근맹초급조직들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맹렬하게 벌리고있다.

황해북도안의 시, 군농근맹조직들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사준비를 빈틈없이 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중소농기구, 초물농기구, 내부예비전시회를 통하여 44종에 230만여점의 중소농기구와 11종에 300만여점의 초물농기구 등이 출품되였다.

함흥시농근맹위원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포구역 영광협동농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중소농기구전시회를 의의있게 조직하여 60종에 1만 2 000여점의 중소농기구와 초물농기구가 출품되게 하였다. 이것은 온 시에 농사중시열풍을 일구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경쟁에 대한 평가사업도 의의있게 조직하여 그 생활력이 뚜렷이 발휘되게 하고있다.

3월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주요농업부문 경쟁단위들사이의 주체99(2010)년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이 진행되였다.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교훈을 찾으며 결의를 다지는 형식으로 진행된 총화모임에서는 태천군 은흥협동농장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고산과수농장,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회주의경쟁을 올해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틀어쥐고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가고있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각지 농근맹조직들의 눈부신 활동은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농근맹원들을 새로운 혁신에로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투쟁속에 넘치는 혁명적랑만

시대의 자랑 흥남의 군중예술

뜻깊은 지난 2월의 며칠동안 혁명의 수도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지난 1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업소들에서 준비한 종업원예술소조공연을 몸소 보아주시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며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함흥의 로동계급, 특히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군중예술활동은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랑만이 없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수 없고 미래를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만도 여러차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시고 기업소의 예술소조공연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신 몇해전 흥남에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태여났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공연을 보지 못하고 떠나오신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시여 기업소를 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업소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고 출연자모두에게 은정어린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평양에 와서 공연을 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흥남의 로동계급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담아 그들의 공연을 자주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삼복철강행군과 눈보라강행군을 이어가시던 나날에 몸소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흥남로동계급의 예술소조공연은 오늘 흥남의 군중예술이라는 말과 더불어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다.

흥남의 군중예술은 백두산위인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인 주체34(1945)년 12월 6일 흥남비료공장(당시)을 처음으로 찾아주시고 그후 30여차에 걸쳐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으며 그 과정에 여러차례 기업소의 로동자문화회관에 들리시여 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돌이켜보면 바로 흥남의 로동현장에서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조선로동계급의 끝없는 긍지와 억센 기상을 노래한 《승리의 5월》, 《산업건국의 노래》와 같은 명곡들이 태여났으며 새 조선의 로동영웅들을 형상한 첫 장편서사시도 흥남에서 창작되였다. 그러한 흥남땅에서는 군중예술활동도 힘있게 벌어졌다.

일찍부터 흥남로동계급의 군중예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같은 로동계급의 대집단속에서 응당 혁명적문화가 창조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선군시대 새 문화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주시였다.

그 손길따라 대고조시대에 와서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한 흥남의 군중예술은 로동계급의 군중예술을 대표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라는 력사적인 명제가 태여난 흥남은 군중예술로 더욱 유명해지게 되였다.

흥남의 군중예술은 로동이 그대로 노래로 되고 노래속에서 벅찬 투쟁과 생활이 벌어지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의 축도, 로동계급의 정신세계와 문명의 거울과도 같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의지로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전투적기백, 혁명적락관주의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조선로동계급의 신념이 여기에 비껴있다.

위대한 대고조시대와 더불어 강성대국건설의 주력부대로 영예떨치고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지금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경제성과들과 함께 혁명적군인문화에 바탕을 둔 로동계급의 새로운 예술창조로 시대를 뒤흔들고있다.

대고조시대에 태여난 로동계급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온 나라에 파급되고있다.

대고조시대 로동계급의 예술의 앞장에는 흥남의 군중예술이 있다.

오늘날 흥남의 군중예술의 본질과 의미를 똑똑히 알면 령도자와 로동계급과의 혼연일체의 숭고한 세계를 깊이 느낄수 있다.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 조선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은 어디에서 샘솟는것인가.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인 흥남의 군중예술에 그 대답이 있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영웅들이 부른 노래

…
천만의 아들딸 영웅으로
　키워온
그대의 붉은 당기발
기폭에 어머니 옷자락이
　어려와
목메여 노래하노라
…

인민문화궁전 무대에서 영웅메달을 번쩍이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그들의 눈가에도,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관중들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맺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지난 1월 2.8비날론련합기업소 종업원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평양에 불러주시였다.

평양으로 떠나기 전날밤이였다. 작업장에 나타난 종업원들의 손에서 공구들을 빼앗는 사람이 있었다. 로력영웅인 카바이드1직장 직장장 현성신동무였다.

《어서들 집에 들어가 떠날 준비를 하시오.》

《직장장동지, 이렇게 저희들만 평양에…》

그러자 현성신동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동무들만 간다고 생각하오. 경애하는 장군님과 순간도 떨어져산적 없는 우리 비날론로동계급의 마음속에 꽉 차있는 평양이 아니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비날론증산으로 받들어갈 우리의 신념을 노래에 담아 높이 불러주오.》

그날밤 김채옥, 정복순동무들은 초소의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다.

영웅의 아들답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용사가 되겠다며 강성대국결승선에 비날론꽃바다를 펼쳐달라고 부탁하던 자식들의 름름한 모습이 눈앞에 삼삼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순간도 잊지 않고 전사된 도리를 다하려는 심장의 맹세가 글줄마다에 뚜렷이 새겨졌다.

딸자식을 가진 집들에서 왼심을 쓰며 은근히 견주어보는 총각영웅인 박성철동무도 그리고 자그마한 마음속 그늘이라도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고 영웅으로까지 키워준 그 품을 운명의 명줄로 삼고 한생을 불타는 충정과 보답으로 수놓아갈 결의에 넘쳐있는 조상호동무도, 변천히, 문종근, 목성균동무들도 그밤 멀리 장군님 계시는 곳으로 마음달리며 뜬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이렇게 평양으로 떠나온 영웅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으랴.

영웅들이 부른 노래, 그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송가였고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인민의 행복의 메아리였다. 우리의 장군님과 끝까지 생사를 같이하며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폭풍쳐 내달려 기어이 이 땅우에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워 주체의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고동치는 불변의 선서였다.

…
그처럼 정을 다하여
내 삶을 빛내준 그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품
내 운명 당이여
그대를 나는 노래하노라
…

본사기자 조 경 철

보람찬 로동과 생활의 나날에

《재청!…》

화려한 인민문화궁전의 무대에서 관람자들의 박수에 손을 흔들어 답례를 보내며 미소를 짓는 부부, 이제는 흥남의 부부2중창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깊게 자리잡은 리종선, 김봉숙동무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되여 수도 평양의 훌륭한 공연무대에 나란히 서게 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어디를 가보아도 근로자들이 일하며 생활하는 곳에서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백두산으로 오르는 인민군군인들속에는 리종선, 김봉숙동무들이 있었다.

그들이 지금처럼 쬐꼴새부부로 되리라고 생각해본 사람들은 그때 없었다. 본인들도 그날의 백두산답사행군길이 자기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의깊은 리정표로 될지 그때에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

답사행군의 휴식참이나 숙영의 밤 우등불가에서 군인들의 요청에 따라 2중창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연깊은 삼지연의 두그루 봇나무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리고 티없이 맑은 천지물을 군용물통에 담으며 그들은 한생을 항일의 투사들처럼 살리라는 맹세를 서로 마음속에 새기였다.

군사복무를 마친 후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였다. 그들은 화학공업기지 흥남에로 마음이 쏠렸다. 거기서 둘이 함께 손잡고 마음껏 일해보고싶었다. 그래서 흥남으로 가자는 리종선동무의 제의를 김봉숙동무는 흔연히 받아들이였다.

후날 그들은 결혼하였고 첫 살림도 흥남에 폈다.

생활과 투쟁은 얼마나 벅차게 흘렀던가.

그들은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이런 그들의 이름은 점차 작업반과 직장을 벗어나 온 기업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는 예술소조공연은 물론 중요한 작업들이 진행되는 곳마다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울리였다.

합성직장에서 대형탑보수전투가 벌어졌을 때였다. 그들은 수십m높이의 대형탑꼭대기에, 그것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속에서 더운물이 담긴 물통을 품에 안고 올라가 로동자들에게 권하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거기에서 새 힘을 얻은 로동자들은 대형탑보수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리종선, 김봉숙동무들이 부르는 노래는 흥남로동계급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투쟁과 위훈의 나팔소리가 되였다.

노래는 그들의 사랑이였고 힘이였으며 그들가정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런 그들을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이들의 노래를 들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사복무시절에 서로 알게 되고 제대후에는 한공장에서 일하면서 예술소조공연에도 함께 출연하였다니 얼마나 좋은가고 분에 넘치는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런 은정속에 리종선, 김봉숙동무들은 수도의 극장무대에도 나서게 되였다.

복받은 부부, 노래속에 태여난 부부인 그들은 자기들의 노래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노래도, 우리 가정의 행복도 있는것입니다.》

본사기자

배천군인민보안서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진정을 다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배천군인민보안서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은 군안의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소문없이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있다.

최명일동무를 비롯한 배천군인민보안서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은 조국을 위해 피흘린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는것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 자기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본분으로 생각하고 군안의 영예군인가정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얼마전에도 유백문, 공순찬동무를 비롯한 군인민보안서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읍지구에 살고있는 김정호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그들은 영예군인의 건강이 꼭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성의껏 마련한 귀한 약재를 내놓았다.

순간 김정호동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기간 자기 가정을 위해 바쳐온 인민보안원들의 지성이 깊은 추억속에 되살아났기때문이였다.

10여년전 금성리에서 온 군의 축복속에 행복한 새 가정을 이룬 못 잊을 그날로부터 읍지구로 이사와 생활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곁에는 언제나 군인민보안서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의 다심한 손길이 닿아있었다.

하루빨리 건강을 추켜세우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자며 햇곡식과 햇과일들을 안고오고 집안팎도 번듯하게 꾸려주었는가 하면 병사시절처럼 랑만에 넘쳐 살라고 새 노래집들을 마련해주고 료양지로 떠날 때마다 지성을 다한 고마운 사람들…

친혈육도 대신 못할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기에 김정호동무는 나날이 건강이 좋아지고 작품창작의 나래를 펼칠수 있었으며 몇해전에는 만사람의 축복속에 태여난 귀여운 딸애까지 품에 안을수 있은것이 아니였던가.

이런 감동깊은 화폭은 군안의 많은 영예군인가정들에 펼쳐지였다. 금산리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김광주동무의 집에도 구면친구들인 최춘수, 한인철동무를 비롯한 인민보안원들이 찾아왔다. 이들이 서로 정을 주고받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사실 영예군인 김광주동무는 분계연선마을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꾸릴 남다른 꿈을 안고 금산리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제대군인들의 옛 소대장이다.

금산리 제대군인작업반원들이 후날 영예군인이 된 자기들의 소대장을 자기네 작업반마을에 데려와 한집안식솔이 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민보안원들은 우리 시대에 꽃펴나는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세계가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것인가고 하면서 자기들도 김광주동무의 건강과 생활을 힘껏 도울것을 결의해나섰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민보안원들은 김광주동무를 위해 진심을 다 바쳐왔다.

추정리와 운산리를 비롯하여 군안의 어느 리의 영예군인가정에 가보아도 인민보안원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남다른 사연들이 간직되여있으며 그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하지만 이곳 인민보안서의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은 그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며 한사람같이 말하였다.

《인민의 복무자로서 혁명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되는거야 너무도 응당한 일이 아닙니까.》

본사기자 허 명 숙

탄광의 창의고안명수

강동탄광 공무직장 직장장 동영국동무는 탄광에서 손꼽히는 실력가이다.

그는 지난 기간 정열적인 사색과 탐구, 피타는 노력으로 석탄생산에 이바지할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완성하여 내놓았다.

지난 기간 그가 창안한 탄차완충장치를 비롯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은 생산에 도입되여 큰 은을 냈다.

탄광의 설비들에 정통하고 직장앞에 맡겨진 과업을 잘 수행하면서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수많이 내놓은 그를 가리켜 일군들과 탄부들은 한결같이 창의고안명수라고 부르고있다.

로농통신원 유 도 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국선군시대농근맹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국선군시대농근맹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2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방문한 회의참가자들은 일찌기 농근맹을 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 사상교양단체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고 농업근로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당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하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전사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농업근로자대중의 정신력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교양과 대중운동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농업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기여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도이췰란드그리스도교민주동맹출신 련방의회 의원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일 유르겐 클림케 도이췰란드그리스도교민주동맹출신 련방의회 의원과 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의원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일 빠벨 오브쌴니꼬브단장 겸 수석지휘자가 인솔하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자랑하고싶습니다

전쟁로병영예군인인 저에게는 친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산동 20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최창심녀성은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우리 가정을 극진히 위해주고있습니다. 때감이며 식료품 그리고 생활필수품들을 가지고 찾아와 위해줄 때마다 우리 부부는 어버이장군님의 은덕으로 근심걱정없이 사는데 그런 걸음일랑 말라고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동안 최창심녀성은 친딸처럼 명절날, 기념일마다 남편과 함께 저의 입에 맞는 음식이며 보약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오고있으니 곁에 있는 자식인들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어쩌다 감기로 누웠을 때에는 저의 머리맡에서 뜨지 않고 찬물찜질도 해주고 입맛을 돋구는 음식도 입에 떠넣어주며 온갖 정성을 기울이였습니다.

이런 최창심녀성을 대할 때면 우리 사회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도덕기풍과 의리가 넘치게 하여주고 사람들모두를 도덕의리의 체현자들로 키워준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저는 눈시울을 적시군 합니다.

정주시 오산동 채 규 환

수종이 좋은 나무모 생산

황해남도에서

【해주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황해남도에서 나무모생산을 잘하고있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도에서는 평양뽀뿌라나무, 잣나무를 비롯한 1억 2 400여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였다.

도산림관리처에서는 나무모생산을 위한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원림, 산림조성을 전망성있게 해나가고있는 봉천, 신천, 옹진군이 나무모생산의 앞장에 섰다.

이곳 군들에서는 나무모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해마다 나무모밭들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잣나무와 세잎소나무를 비롯한 3 5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튼튼히 키워냈다.

후대들에게 황금산, 보물산을 넘겨줄 애국의 마음안고 해주시와 연안, 벽성군에서는 겨울철에 나무모들이 얼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사름률을 높이였다.

삼천, 강령, 태탄, 장연군에서는 종자채취와 싹틔우기 등 나무모기르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식과 경험을 근로자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실천에 구현하도록 하였다.

나무모비배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고있는 은률, 은천, 안악, 신원군에서는 앞선 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실한 나무모를 자래웠다.

재령, 배천, 청단, 송화군에서도 여러해전부터 수종이 좋은 나무모생산을 늘여 군안의 산들을 푸르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봄철나무심기를 잘하고있는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
—보통강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중국대사관에서 중조친선 설명절영화감상회 마련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서는 2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중조친선 설명절영화감상회를 마련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등 여러 부문의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중국예술영화 《초원의 꽃》을 감상하였다.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도착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빠벨 오브쌴니꼬브단장 겸 수석지휘자가 인솔하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관현악단을 맞이하였다.

이악한 녀성 작업반장

선천군 월천협동농장 제2작업반장 장명화동무는 농장이 자랑하는 일욕심이 많은 녀성작업반장이다.

처녀시절 알곡증산으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한마음을 안고 사회주의협동벌에 뿌리내린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농사에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오고있다.

작업반장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오랜 농사경험을 가진 농장원들에게서 농사경험을 습득하고 전문기관들과 군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선진농업과학기술지식을 터득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원들을 이끌고 작업반건물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새롭게 꾸리였으며 농기구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았다.

특히 해마다 질좋은 거름을 포전마다 듬뿍 실어내여 알곡소출을 크게 높이게 하였다.

로농통신원 차 춘 건

누가 북남관계의 총체적파국을 몰아왔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정권》이 출현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갔다. 남조선보수세력의 집권은 6.15통일시대를 되돌리고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반력사적행위의 출발이였다. 그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 아닐수 없었다.

지난 3년간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악몽같은 나날이 흘러왔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삼천리강토에 차넘치던 환희와 기쁨은 사라지고 북남관계는 최악의 대결상태에 처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험악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며 활기있게 전진하여오던 북남관계를 총체적파국상태에 빠뜨려 10여년전의 불신과 대결의 과거에로 되돌린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망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악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근본지침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백지화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기치이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북남선언들에는 북남관계의 개선과 나라의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원칙과 그 실현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북남선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위업의 전도가 달려있다. 온 민족이 한결같이 지지찬동하고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최고의 통일관계문건으로서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말살할수 없다.

그러나 대결을 추구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었다. 남조선당국의 립장은 한마디로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는 식이였다. 대결광신자들속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그 무슨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이라느니, 《6.15식통일은 절대 안된다.》느니 하는따위의 북남선언들을 모독하고 헐뜯는 망발들이 계속 울려나왔다. 그들은 북남선언들의 고귀한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를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적민족주의》로 비방중상하는 참을수 없는 망동도 부리였다.

괴뢰들은 북남선언들을 존중, 리행할데 대한 각계의 요구가 비발치자 《남북기본합의서》를 운운하며 그것이 북남관계의 《근본정신》이라고 떠벌이였다. 그것은 합의서에 그 어떤 미련이나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다른것과 뒤섞어놓음으로써 그의 력사적의의를 약화시키려는 계책이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부딪치자 저들이 북남선언들을 《부정한적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들이 지난 3년동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과 관련한 기념행사에 언제 한번 얼굴을 들이밀지 않고 6.15공동선언으로는 《남북관계를 풀지 못한다.》고 기염을 토한 사실만으로도 북남선언들을 무시하며 그에 등을 돌린 남조선집권세력의 본심은 충분히 립증되고도 남는다.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완전히 배치되는 《비핵, 개방, 3 000》이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온것만 보아도 북남선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리행을 거부하려는 그들의 반통일적기도를 잘 알수 있다. 《비핵, 개방, 3 000》은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하고 개방시켜 제도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 류례없고 극히 로골적인 반통일대결문서이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의 실패가 명백히 확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고집하면서 대결정책의 전환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다.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에 의해 전면부정당함으로써 북남관계는 선언채택이전의 상태에로 뒤걸음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반대하면서 그것을 모조리 파탄시키였다.

북과 남의 대화와 협력은 관계개선을 다그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방도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과 남은 대화와 협력을 활발히 하면서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크게 전진시켰다. 그러나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이 어린 북과 남의 대화와 협력은 남조선보수세력의 집권으로 하루아침에 된서리를 맞았다.

남조선집권세력은 권력을 잡자마자 《과거식의 남북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떠벌이며 북남사이의 당국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을 일시에 중단시켜버렸다. 그들은 북남대화를 《5년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누구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객기를 부리면서 대화반대립장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어댄 그 무슨 《기다리는 전략》과 《원칙고수》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남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면서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압력과 봉쇄를 강화하여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흉계의 발로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각계가 《원칙고수》타령을 두고 《대화하지 않는 원칙》이라고 비난했겠는가.

남조선당국의 대화파탄책동으로 지난 3년간 북남사이에는 똑똑한 대화가 단 한번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9년 8월 북남관계가 첨예한 속에서도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열망과 의지를 안고 대화실현을 위한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자 남조선당국은 고약하게도 《전술적변화》라느니 뭐니 하고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대하면서 대화분위기에 재를 뿌리는짓을 서슴지 않았다. 올해 2월에 열리였던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과 내외의 압력에 못 이겨 회담탁에 나온 남조선당국은 회담의 급수문제, 의제문제 등을 놓고 생트집을 걸고 당치않은 구실을 내댐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회담을 끝내 결렬시키고야말았다.

남조선보수《정권》하에서 북남협력사업들도 줄줄이 파탄되였다. 남조선당국은 북남협력을 그 누구에 대한 《퍼주기》라고 외곡선전하는 한편 《대북경협4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그 골자는 이미 북과 합의한 협력사업일지라도 《핵문제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우선 할것, 나중에 할것, 못할것》으로 나누어서 추진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북남협력을 하지 않으려는 속심을 내비친것이다. 실제로 남조선당국은 《협력이나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생각지 말라.》고 하면서 동족과의 협력사업에 나서는 단체들과 기업들에 압력과 협박을 가하였다. 남조선통일부가 북남협력사업에 돌리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보잘것없는 자금마저 대폭 축소하는 치졸한 놀음을 벌린것은 그들이 동족사이의 협력을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북남협력을 가로막는 남조선당국의 죄행으로 온 겨레의 관심속에 활발히 진행되여오던 금강산관광이 끝내 파탄되였다. 금강산관광을 어떻게 하나 집어치울 기회만을 노려오던 보수패당은 2008년 7월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이 사업에 빗장을 질렀다. 우리가 북남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어떻게 하나 재개할 통일애국의 일념으로부터 2009년 8월 남조선의 현대그룹과 관광재개를 합의하자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3대조건》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또다시 훼방을 놀았다.

경제협력만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조작한 이후에는 그 무슨 《5.24조치》라는것을 들고나와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협력과 교류, 인도주의적사업마저 사사건건 차단시키였다. 보수당국의 협력부정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북남관계는 사상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대화와 협력은 호상 리해와 신뢰를 다지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북남관계가 가뜩이나 긴장하고 첨예한 형편에서 대화와 협력이 전면차단되였으니 그 후과가 어떻겠는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가 아니라 군사적대결과 북침전쟁을 악랄하게 추구하였다.

남조선집권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국방부와 전방부대들을 찾아다니면서 《안보를 튼튼히 하라.》고 선동하면서 대결전쟁열을 고취하였다.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집권자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 최후의 궁극적목표》라고 떠벌이면서 북침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괴뢰군부패거리들은 보수《정권》의 출현과 함께 그 누구에 대한 《군사적우세》를 떠들며 북침선제공격을 노린 무력증강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한편 《선제타격》폭언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북남관계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갔다. 주요북침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7》은 보다 공격적이고 모험적인것으로 완성되였으며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고 하는 《개념계획 5029》는 실제적인 작전계획으로 전환되였다. 괴뢰군은 《대북억제》라는 지난 시기의 기만적인 군사교리마저 줴던지고 그것을 로골적인 《선제공격》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조금도 바라지 않으며 오로지 무력에 의한 북침통일만을 획책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지난 3년간 남조선에서는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군사적도발소동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가장 엄중한것은 괴뢰호전광들이 우리를 모해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사상 류례없는 반공화국모략극인 《천안》호사건을 꾸며낸데 이어 11월에는 연평도포격사건이라는 위험천만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이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서 우리를 모해하고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호전광들의 광란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남조선호전광들의 책동은 그들이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뛴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현 보수《정권》하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정이 언론들에 뻐젓이 공개되고 외세와 함께 벌리는 각종 전쟁연습들이 사상 최대규모에 이른것은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얼마나 무모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의 한 단체가 보수패당의 집권 3년간을 총화하는 백서를 발표하면서 당국의 《대북정책》을 《전쟁친화정책》이라고 락인한것은 당연하다.

우리 공화국의 대화평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침을 가상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대규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최악으로 격화되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반민족적인 북남관계파괴책동이 빚어낸 후과는 실로 엄중하다. 남조선보수《정권》의 출현 3년만에 6.15통일시대의 소중한 성과들이 여지없이 말살되고 이제는 북남관계가 불과 불이 오가는 속에 핵전쟁발발의 위험이 짙게 떠도는 험악한 지경에 이른 현실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민족의 운명, 통일의 전도가 달린 북남관계는 결코 남조선통치배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의 롱락물이 될수 없다.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은 남조선보수당국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되고야말것이다.

은 정 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전지역에서 북침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강행하고있다.

핵항공모함전단과 스트라이커부대를 비롯한 미제침략군증원무력과 핵선제타격수단들이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투입되고있는 가운데 미군과 괴뢰군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고도의 전투태세에 진입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는 화약내, 불구름으로 뒤덮이고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들이 빈번히 감행되였지만 그 누구의 《핵 및 미싸일제거》니, 《급변사태대비》니 뭐니 하고 상대방에 대한 체제《붕괴》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불장난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이번 북침전쟁연습에 대해 《방어훈련》이라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의 최극단위기에로 몰아간 책임을 모면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황당한 궤변이다.

대화상대방을 무력으로 해치기 위한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그 누구의 《진정성》을 걸고들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떠드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실로 파렴치하고 가소로운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지난 조선전쟁전야에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절절한 제안을 담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에 대해 리승만역도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로 대답해나선 그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애당초 북남대화와 긴장완화, 평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오직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언한대로 민족의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고 우리의 체제를 감히 어째보려 하는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는 자기가 지른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고 무모한 불장난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100(2011)년 3월 2일
평 양

반역정치가 빚어낸 혼란과 위기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거스르는 반인민적정치는 필연코 정치적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남조선현실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근로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는 보수당국의 반역통치로 말미암아 인민생활파탄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세금과 물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뛰여오르고있으며 실업사태가 날로 악화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이고있다. 거기에 최근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구제역사태까지 겹쳐 사회적분노는 폭발직전에 이르고있다. 그 무슨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겠다.》느니,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겠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떨던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빚어낸 현실은 이처럼 파국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각계 단체들은 인민생활을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집권세력을 단죄규탄하면서 항의투쟁을 고조시키고있다. 지난 2월 21일부터 남조선《국회》에서는 이미 제출된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번 기회에 구제역, 세금난, 물가상승, 실업 등 《4대민생대란》을 몰아온 현 당국의 악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있다. 이로 하여 《국회》는 시작부터 그 분위기가 험악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내부의 모순과 대립도 더욱 깊어가고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헌법》개정과 《국회보충선거공천》문제 등을 놓고 두패로 갈라져 싸움질하고있다.

얼마전 《한나라당》은 당내 개헌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온종일 론쟁을 벌렸지만 계파들간의 리해관계의 충돌로 하여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하였다. 《국회보충선거공천》문제를 놓고도 매일과 같이 싸움질이여서 《두패로 갈라진 〈한나라당〉, 두 솥밥》이라는 조소를 받고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남조선집권세력은 권력의 고위층속에서 련속 터져나오는 부정부패사건들로 하여 더욱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이른바 《함바(건설현장식당)비리》로 불리우는 부정부패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에 숱한 집권층족속들이 걸려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신통히도 현 집권자의 신임을 받아 요직에 틀고앉아있는자들이다. 이들의 부정부패행위가 누구의 보호밑에 감행되였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의 인물들이 서둘러 사표를 냈지만 그것으로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야당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를 강화하고있다.

얼마전 민주당 대변인은 《권력의 상층부터 말단까지 부패된것을 보면 말기암환자수준》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남조선 각계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속에 집권세력은 극도로 초조해하고있다. 현재 《정권》몰락의 시발점으로까지 평가되는 이 부정부패사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내부에서는 《일단 올것이 온게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까지 울려나오고있다.

지금 보수당국이 극도로 분노한 민심을 누잦혀보려고 또다시 회유기만놀음을 벌리고있지만 민심은 결코 속일수 없다.

오만과 독선으로 강행추진되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은 각계의 강한 반대와 항의규탄에 부딪치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심각한 통치위기에 처하고있으며 정국은 갈수록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속에 빠져들고있다.

본사기자 허 영 민

미군이 무고한 남조선로인들을 폭행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2월 26일 미제침략군 제2사단소속 사병이 남조선로인들을 마구 폭행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이날 아침 경기도 동두천시내의 한 집에 침입한 미군범죄자는 70대의 로인부부를 흉기로 마구 폭행하고는 손전화기를 강탈해가지고 뺑소니쳤다.

로인부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한다.

울산에서 구제역 발생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울산에서 구제역이 나타난것은 처음이다.

현재 구제역발생지역이 11개 도, 시로 늘어났으며 매몰처리된 집짐승은 343만마리에 달한다.

【조선중앙통신】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주의는 인민의 락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후대관에 비낀 판이한 두 제도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국가적혜택과 사회적관심속에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로 훌륭히 자라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올해 1월 《로동신문》에는 평양산원에서 지난해말에 네쌍둥이가 출생한데 이어 새해 첫날에 또다시 세쌍둥이가 태여난 기쁜 소식이 실리였다. 세쌍둥이와 함께 정월의 첫 한주일동안에 평양산원에서만도 380여명의 어린이들이 태여나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우리 사회에서 세쌍둥이, 네쌍둥이는 행복과 축복의 대명사로, 그 출생이 온 나라의 큰 경사로 되고있는것이다.

세쌍둥이들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그들에게 금반지와 은장도를 비롯한 선물들이 안겨지는 사회, 국가가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아주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두고 누구나 기뻐하고 밑거름이 되여주는 기풍이 사회적풍조로, 륜리로 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복동이, 귀염둥이, 꽃망울, 꽃봉오리, 꽃나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호칭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붙여지고있는가.

어린이들을 떠나서 행복한 생활과 보람차고 아름다운 오늘과 래일을 생각할수 없다.

숭고한 후대관, 고상한 륜리가 차넘치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귀중한가를 반증해주는 자료가 있다.

어느 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해마다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져 사회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1970년대에 한해에 100여만명에 이르던 그 나라의 출생자수가 지난해에는 50만명도 채우지 못하였다. 80여세대나 살고있는 어느 한 마을의 경우 최근 5년동안 단 한명의 아이도 태여나지 않는 기가 막힌 일도 생겼다.

출생률이 감소되고있는 원인은 생활난에도 있지만 보다는 자본주의사회가 부식시킨 변태적인 생활풍조, 말세기적인 후대관에 근원을 두고있다.

변태적이며 극단한 개인주의적인 사회적풍조가 범람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나라에서는 결혼한 녀성들가운데 아이를 낳지 않는 녀성의 수가 해마다 배로 불어나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 나라의 현실을 두고 행성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최초의 지역이 될수 있다고 개탄하고있다.

일본땅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인간멸시가 만연하여 인간성이 사멸되여가고있는 일본사회에서는 그나마 세상에 태여난 어린이들이 부모라는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처사로 죽어가는 현상이 평범한 일로 되고있다.

지난해 4월 일본의 어느 한 신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인간적인 어린이학대에 대한 소식이 뻐젓이 실렸다.

—어린애를 빵구이로에 넣은 리유가 무엇인가?

—특별한것은 없다. 뜨거운 것을 리해할수 있는 나이인가를 시험해보려고 스위치를 넣었다. 인차 스위치를 끄면 괜찮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안해는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이것은 신문에 실린 글의 한 토막이다.

이미 2살 난 맏아들을 쓰레기통에 넣어 질식시켜 죽인 도꾜의 35살 난 한 남성이 수사관의 질문에 이렇게 태연히 대답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자기 아이를 빵구이로에 넣은 동기에 대하여 아무런 자책감도 없이 아주 담담하게 설명하였다.

이에 앞서 어머니가 2살짜리 딸을 애기목욕통의 끓는 물에 우정 넣어 두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힌 사건도 발생하였다. 그 계기라는것이 참 가관이다.

그는 자기 딸이 찐 만두를 먹을 때 뜨거워 토하려 하는 모습을 보고 텔레비죤화면에서 희극배우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장면을 상기하였다고 한다. 어머니라고 하는 협의자는 《울면서 웨쳐대는 딸의 모습이 재미있었다.》고 뇌까렸다고 한다.

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진술인가.

최근에 발표된 자료만 보아도 일본에서는 년간 4만건이상의 이러한 아동학대행위가 저질러지고있다고 한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가정이라는 또 하나의 《감옥》에서 부모들의 폭행으로 여지없이 시들고 숨지고있는것이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진상이다.

이런 사회에 무슨 인간다운 륜리가 있고 미래가 있겠는가.

서로 다른 후대관에 비낀 두 제도의 판이한 현실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야말로 가장 고상한 생활, 아름다운 미래가 담보되는 락원이고 자본주의사회는 망조가 든 사회라는 력사의 진실을.

본사기자 정 성 일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학살만행에 격분을 금치 못하며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김 진 명 찍음

순간도 잊지 않게

남포시계급교양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남포시계급교양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투철한 반미반일계급의식과 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계급교양의 도수를 부단히 높이는것은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의 드팀없는 의지로, 자각으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계급교양의 심도를 보장하기 위한 자료발굴에 큰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거둔 시계급교양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그에 토대하여 계급교양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중심을 바로 정하고 참관자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강의를 이야기식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 참관자들의 실생활과 결부된 통속화되고 자료화된 해설강의, 자기 시의 구체적인 계급교양자료에 기초하여 미일반동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변할수 없는 본성과 악랄성을 론증하는것 등은 시계급교양관일군들과 강사들의 사업에서 특징을 이루고있다.

하나하나의 계급교양해설이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투철한 계급의식을 총탄마냥 재워주는 의의깊은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은 년초부터 학술토론회와 집체적토의를 진공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계급교양관과 인민대학습당에 전시보관되여있는 자료들을 깊이 연구하고 시안의 많은 지역들을 다니며 전사자, 피살자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이 남포땅에서 저지른 만행자료들을 발굴고증하고있다. 이러한 활동은 강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사들은 참관자들에게 계급교양관에 대한 개괄강의를 진행한 다음 새로 발굴된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설득력있는 강의를 진행하고있으며 계급교양자료들을 가지고 록화물들도 만들어 강의에 리용함으로써 계급교양의 실효성을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강사들은 새해 거름실어내기전투에 떨쳐나선 와우도구역과 항구구역의 여러 단위들에 나가 현지에서 실효성있는 방송선전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동식계급교양직관물들을 가지고 강서지구의 탄광에 달려나가 감화력이 큰 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일군들과 강사들은 올해초부터 전후 어려운 시기 강철증산으로 당을 받들어온 강선로동계급의 투쟁이 어떤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실효성있는 계급교양사업을 벌리고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남포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급적자각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고있다.

오늘도 남포시계급교양관 일군들과 강사들은 계급교양사업을 더 잘해나갈 높은 책임감을 안고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평화수호투쟁은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방도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원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인류의 이러한 지향과 열의는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그러나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강도적인 침략과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강권과 패권주의정책,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파괴, 위협당하고있으며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이 심히 억제당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실현될수 없다.》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나라와 민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남에게 예속되여 사는것을 원하지 않으며 외세에 의해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자주권을 빼앗긴 나라는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할수 없으며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할수 없다.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평화수호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인민대중은 언제나 평화를 지향한다. 오늘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다. 지난날 뒤떨어졌던 발전도상나라들이 빠른 발전을 이룩해나가는것은 현시대의 특징이고 기본추세이다.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새 세기에 들어와 높은 발전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들이 내세운 새 세기 사회경제발전목표를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환경이 보장되여야 한다. 평화적환경은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새 세기 사회경제발전에 원만히 돌릴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된다. 지구상에 침략과 전쟁위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그를 외면한채 경제건설에만 힘을 집중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평화가 보장되여야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협력과 교류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다.

오늘 평화수호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우심해지고있는 현실에 비추어보아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지어 무력으로 이런 나라들을 압살하는 횡포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현실은 평화수호투쟁을 떠나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없으며 새 세기 사회경제발전목표도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평화수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지키고 새 세기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담보가 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으며 오직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평화수호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반제반전투쟁이다.

현시기 평화수호투쟁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변화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침략수법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그에 원칙적립장을 가지는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권전복을 시도하면서도 그렇고 무력행사에 의한 공공연한 침략을 감행하면서도 《평화보장》과 《민주주의질서수립》에 대해 떠들고있다. 평화보장은 명실공히 자주권존중에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이 《평화보장》과 《민주주의질서수립》을 떠들 때마다 나라들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인민들이 피를 흘리는것과 같은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현상이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나라의 정치질서가 불안정해지고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잠겨 마음편히 살지 못하고있다.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화목과 친선을 해치는 《평화보장》과 《민주주의질서수립》이 과연 누구한테 필요한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의 정치제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뜯어고치려는것은 자주권존중과 평화보장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평화보장》, 《민주주의질서수립》론은 침략과 간섭의 대명사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보장》, 《민주주의질서수립》타령에는 침략전쟁, 간섭이 뒤따른다는것을 명심하고 그들의 교활한 침략수법에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의 위험성과 수법을 똑똑히 알고 그를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에 강경히 맞서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행위에 겁을 먹고 물러서면 그들은 더욱 오만하게 날뛴다. 평화를 지향하는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혁명적으로 대처해나갈 때 그들의 범죄적기도를 좌절시킬수 있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필수적동반자이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침략과 전쟁위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인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능히 막을수 있으며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

자위적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적군사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는것은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다른 나라 군대와 인민들속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자기 힘이 강할 때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이겨내고 침략세력과 맞서싸우겠다는 용기도 생기게 된다. 자위적국방력이 막강한 나라를 제국주의자들은 감히 어쩌지 못한다.

평화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인민일수록 군사를 중시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평화수호투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단결에 있다. 단결을 떠나 진보적인민들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수호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평화수호투쟁은 그 어느 특정한 나라들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위치하고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먹어치우는 방법을 택하고있다.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개별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위협과 무력행사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력량이 단결되는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제국주의반동들은 평화애호력량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별의별 모략과 음모를 다 꾸민다.

현시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것은 시대와 인류앞에 나서는 공동의 과제이다.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서로 련대하고 힘을 합칠 때 그 힘은 백배로 강해지게 된다. 진보적나라들이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단결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얼마든지 짓부셔버리고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취약성을 똑바로 보고 그들의 허장성세에 놀라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제국주의침략세력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그들의 힘의 정책과 침략전쟁책동은 자체의 극복할수 없는 모순과 난문제로 하여 파탄을 면할수 없다. 반제자주력량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취약성을 똑바로 보고 그들의 허장성세에 겁을 먹지 말아야 하며 반전평화옹호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평화보장과 직결되여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유지는 곧 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우리 인민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며 귀중히 여긴다. 우리 인민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세월 전쟁의 위험속에서 언제 한번 평화롭게 살아본적이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전역에서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야합하여 위험천만한 북침핵시험전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첨예한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재발하지 않은것은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전기간 언제나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기때문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뿐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 인류의 평화위업에 기여한데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평화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전쟁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류의 평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적극 추동할것이다.

리 현 도

네팔신문 글 게재

《선군혁명원리》

네팔신문 《아르판》 2월 18일부가 《선군혁명원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선군혁명원리를 체계화하시였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선군혁명원리는 선군사상의 본질을 규정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한다는 총대철학을 내놓으시였다.

총대철학은 혁명에서 총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혔으며 이것은 선군사상전반에 관통되여있다.

총대는 혁명승리의 기본요인이다.

혁명은 제국주의, 반혁명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진행된다.

혁명의 원쑤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날뛰며 반혁명적폭력으로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하려 한다.

제국주의와 반혁명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은 총대의 대결이며 인민대중이 승리하자면 혁명의 총대가 강해야 한다.

승리한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총대가 굳건해야 한다는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총대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회주의제도수립후 혁명과 건설을 발전시키자면 혁명군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혁명군대의 역할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개조를 담보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를 천명하시였다.

당과 국가, 인민의 운명은 혁명군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고 향도적력량이지만 군대가 있어야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강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수 없다.

일조우호에 관한 모임 도꾜에서 진행

일조우호에 관한 모임이 2월 24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일본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 일조문화교류협회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신보사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일조문화교류협회 부리사장 시미즈 쥰은 일제의 조선침략만행에 대해 자료적으로 폭로하고 일본의 《발전》은 조선의 희생우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그는 력사와 문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것이다, 일본의 과거사를 똑바로 알고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추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반도가 분렬된 근원에는 일본의 식민지통치가 있는것만큼 미국이 조선통일을 가로막는다면 그를 반대하는것이 일본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정책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기

지난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이 신문 《깐싼 애애니》 2월 23일부에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기간 조선인민이 **김정일**총비서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충심으로 받들어모시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 신심과 희망에 넘쳐있는것을 명백히 느낄수 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번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큰 힘을 기울이고있다는것도 알게 되였다.

대표단은 조선방문과정에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조선혁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김정일**총비서동지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계승완성될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였다.

대표단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생산설비들의 현대화, CNC화가 빠르게 추진되고있는것을 목격할수 있었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통일로선들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는 평화통일분위기가 조성되였으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반통일적책동으로 하여 정세는 극도로 악화되고 북남관계는 또다시 대결상태로 되돌아가고말았다.

지금 세계의 모든 진보적단체들과 인민들은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리명박이 남조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조선반도의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수 없으며 미국은 조선이 제기한 평화협정체결협상에 하루빨리 응해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국방공업을 계속 강화하면서 선군정치를 펼쳐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은 매우 정당하며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은 언제나 핀란드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선군령도따라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에서 최근년간 큰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들의 위험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결과 전국적으로 1억 6 100만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지 않게 되였으며 1억 4 400만명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2012년말까지 5 400개, 2013년말까지는 1만 5 900개의 저수지들을 보수할데 대해 포치되였다.

현재 중국에는 8만 2 000여개의 소형저수지가 있는데 그 대다수는 1950년대와 1970년대에 건설된것이다.

남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정부가 최근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 국가예산을 발표하였다.

새 회계년도 국가예산액은 9 793억R (란드)에 달한다.

예산의 많은 자금이 기초시설건설과 교육, 보건분야에 돌려지게 된다 한다.

아르헨띠나에서

아르헨띠나정부가 2월 24일 10개년 공업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앞으로 10년동안 나라에서 해마다 평균 공업생산액장성률을 7%에 이르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 기간 특히 식료, 방직, 건재, 석유화학 등 부문발전에 힘을 넣게 된다.

체스꼬단체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책동을 규탄하여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가 2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은 폭넓은 대화를 통해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평화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이며 이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현정세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평화애호세력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침략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서방의 제재책동에 맞서싸울 의지 표명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2월 26일 서방의 계속되는 제재책동에 맞서싸울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서방이 지난 10여년동안 자기 나라에 가혹한 제재를 계속 가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짐바브웨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비법적인 제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짐바브웨에 있는 이 나라들의 기업체들을 모두 국유화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아프가니스탄항쟁세력 전과 확대

아프가니스탄항쟁세력이 나토군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강화하여 전과를 확대하고있다.

2월 28일 동부와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나토군병사 3명이 또 황천객이 되였다.

이로써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나토군병사수는 60여명에 달하였다.

본사기자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을 지지

요르단외무상 나쎄르 쟈우다트가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독립국가창설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다시금 밝혔다.

그는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은 론의할 여지가 없는 팔레스티나인들의 권리라고 강조하였다.

중동지역에서 기본은 팔레스티나문제라고 하면서 그는 이것을 떠난 중동의 발전에 대해 말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신형독감피해

중국 홍콩에서 얼마전 A (H1N1)형돌림감기에 걸려 앓고있던 61살 난 남성이 사망하였다.

이로써 올해에 들어와 지난 1월 25일에 신형독감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이래 지금까지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새로운 태양전지판 제조기술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최근 새로운 방법으로 태양전지판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 기술은 종전과 달리 규소를 액체화하여 유리기판의 겉면에 바른 다음 기판을 400℃의 열로 가열하여 태양전지판을 만드는것이다.

이 기술을 리용하면 설비가 간단해지고 원료사용량이 줄어들기때문에 이전에 비해 제조원가를 약 3분의 1로 줄일수 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필리핀에서 화산분출

협조

우루과이와 아르헨띠나가 2월 24일 가스공업부문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하루 생산능력이 약 1 500만㎥에 달하는 가스가공공장을 공동으로 건설하게 된다.

이에 앞서 23일 꼴롬비아와 엘 쌀바도르는 범죄반대투쟁에서 호상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국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회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지난 기간 중국당과 정부는 사회관리를 중시하고 중국의 구체적현실에 맞는 사회관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최근시기 중국에서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변화된 조건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수호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며 사람들의 생활상 차이를 없애는것은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중국당과 정부는 과학적발전관에 기초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사회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호금도주석은 최근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한 연설에서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는것은 당과 국가사업을 추진시키고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서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국가의 장기적안정과 정치를 실현하는데서 전략적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회관리체계를 건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중국에서는 사회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수립하고 사회관리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도록 하며 도덕생활과 사회질서, 행동규범을 새로운 사회관리제도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하고있다.

보다 훌륭한 사회관리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정권기관들의 사회관리능력과 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으며 사회 및 민간단체들의 창조력과 능력을 높이고 그들이 사회관리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사회의 모든 부문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적기풍을 수립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있다.

또한 인터네트를 통하여 허위여론을 꾸며내여 류포시키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불순분자들의 음모책동에 대처하여 인터네트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관리를 과학화하는데서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되고있다.

사회관리를 과학화하여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조치들은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가밑에 이미 실천에 구현되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통할수 없는 미국의 전횡과 내정간섭행위

세계를 자기의 독판치기무대로 여기며 횡포한 전횡과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이 도처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

얼마전 아르헨띠나의 국제비행장에서 미군수송기가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량의 불법물자반입이 적발되였던것이다. 미군수송기에는 아르헨띠나주재 미국대사관이 주재국세관당국에 신고한 명세와는 달리 기관총과 탄약을 비롯한 많은 량의 무기류들과 함께 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여있는 약물류, 통신장애기와 여러개의 지구위치측정기 등 통신 및 정보장비들이 실려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아르헨띠나정부의 즉시적인 반발을 자아냈다. 아르헨띠나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총기류를 비롯한 불법물자들을 자기 나라에 끌어들인 미국정부에 항의각서를 제출하였음을 공개하였다. 항의각서에서 아르헨띠나정부는 미국정부나 자국주재 미국대사관이 세관통보명세에 없는 군사장비반입과 관련한 해명은 하지 않고 그것이 그저 정보 및 통신활동, 미국의 안보를 위해 리용된다고 변명하는데 대해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아르헨띠나는 미공군이 지방당국들에 넘겨주지 말아야 할 무장장비들을 자국에 들여오는데 대해 두 나라가 견해일치를 보지 못함으로써 자국군대에 대한 미군의 안보관련강의가 중단된 사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명백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지난해 8월 미국과 아르헨띠나는 미공군이 아르헨띠나의 지방당국에 무장장비들을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마주앉았었다. 그러나 미군이 지방당국의 안보관련강의에 리용할 장비라고 하면서 아르헨띠나의 세관검사를 거치지 않는 반입을 고집하는바람에 회담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막을 내리고말았다. 그후 아르헨띠나주재 미국대사관의 지령에 따라 진행하던 미군의 아르헨띠나군대에 대한 안보관련강의는 중지되였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태도를 달리하여 아르헨띠나경찰의 인질구조를 위한 훈련용물자반입을 주장해나섰으며 그로부터 몇달후 아르헨띠나의 미군수송기억류사건이 발생하였던것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물자반입은 해당 나라의 세관에 정확히 통보한데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이 관례이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존중인 동시에 모든 나라들이 철저히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절차이고 요구이다. 그런것만큼 아르헨띠나가 그에 배치되게 총기류를 비롯한 금지된 물자들을 비법적으로 자국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처사에 반발해나서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은 아르헨띠나에 대한 비법물자반입사실을 시인하기는커녕 그 《합법성》을 운운하고있다. 그들은 낯가죽이 두텁게 이미전에 저들이 중단하였던 아르헨띠나군대에 대한 안보관련강의를 거들면서 문제의 물자들이 그 훈련용이라고 우겨대고있다. 사건발생직후 부랴부랴 아르헨띠나에 날아든 미국무성 부장관은 사죄를 할 대신 그 무슨 《유감》이요 뭐요 하며 철면피하게 놀아댔다. 미국은 아르헨띠나에 압수된 비법물자의 반환을 요구하고있다.

국제법도 자주권존중의 국제관계원칙도 안중에 없이 막무가내로 놀아대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는 아르헨띠나인민의 반미감정을 격증시키고있다. 더우기 이번 사건이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팽팽한 속에 터진것으로 하여 아르헨띠나사회에 던진 충격은 크다. 최근 비밀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위킬릭스》에 의해 공개된 미외교기밀문서에서 미국은 아르헨띠나를 하층주민으로부터 경찰과 정부의 최고인사들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만연된 《부패한 국가》로 평가하고 아르헨띠나정부 공식인물들이 매춘이나 마약밀매에 련루되여있다고 험담하였다. 이것은 이 나라 인민들의 반미감정을 고조시켰다. 미군수송기억류사건은 이러한 민심에 키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미군수송기의 압수물자전량을 폐기처분하려는 아르헨띠나정부의 립장은 단호하고 견결하다. 아르헨띠나대통령은 어느 국가도 자국내에서 법을 위반할수 없다, 자국에 반입된 미군의 비법물자를 압수한것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나라 국방상은 다른 나라 군대가 자국의 경찰에 훈련을 주는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배격하였다. 미군수송기억류사건조사에 대한 아르헨띠나사법성의 사업은 이미 시작되였다고 한다.

저들을 세계우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횡포한 전횡과 내정간섭을 일삼고있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파키스탄 등 많은 나라들에서도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쩍하면 남의 나라 선거에 코를 들이밀고 훈시질하기 좋아하는 미국은 지난해에 있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대통령선거 등을 걸고들며 《민주주의쇠퇴》에 대해 떠들었다. 저들의 사고관점과 기준에 준하여 문제를 제멋대로 평가하는 미국의 주장이 우크라이나에 납득될수 없는것이다. 우크라이나정부는 자국의 민주주의기초와 인권원칙은 확고부동한것으로서 돌려세울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불법무도한 미군무인기공습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는 파키스탄에서는 이 나라주재 미국인들의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사건이 련속 터짐으로써 반미감정이 격화되고있다. 영국신문 《가디언》이 보도한데 의하면 길가던 파키스탄인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사람을 차로 깔아죽인 살인범들은 미중앙정보국의 요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집권자까지 나서서 그 무슨 치외법권을 운운하며 살인자들을 비호해나서고있다.

이에 분노한 파키스탄인민의 반미감정은 하늘에 닿고있다. 특히 피해자가족들은 피에는 피의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면서 살인자들을 교수형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파키스탄의 실업가그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족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파키스탄의 판잡주정부 책임상은 《초대국》에 항복하느니 차라리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편이 나을것이라고 하면서 주정부는 민족의 존엄을 놓고 타협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자주의 궤도를 따라 나아가는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의 독단과 전횡, 내정간섭정책은 그 어디에서도 통할수 없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11042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